

# 지리산내 사찰 봉축프로 '합심'



아미타대불 점안

영천 만불사...높이 33m

저단법인 만불회(회주 학성)는 지난달 25일 영천 만불사 만불사 극락도량에서 아미타영천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영천대불은 아미타불로써 국내 최대인 33m크기의 입불로써 인조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해발236m의 산중턱에 위치한 영천대불은 표면을 도금처리하고 1백여개의 직간접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도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 구간 일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불의 팔각좌대 외벽은 가로12.5cm, 세로20cm의 석가모니불 비자나불 약사여래불 1만불로, 미간의 벽화는 지름20cm의 수정유리로 장엄되어 있다. 이윤호 기자

## 운문승가대 277명 졸업



진광스님 강사 전강

대한불교조계종 청도 운문사(주지 해은)는 4월24일 만세루에서 운문승가대학·대학원 졸업법회와 강법을 전수하는 전강(傳講式)을 봉행했다(사진).

운문사는 이날 지한스님등 승가대학 졸업생 2백71명과 영담스님등 승가대학원 졸업생 6명을 배출했으며 운문승가대 중강(中講)인 진광(眞光)스님이 명성스님의 전강제자로 탄생했다. 이윤호 기자

### 사면/경감/복권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고

佛紀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본 종단에서는 자비문중의 대화합을 위하여 1962년 통합종단사부터 1998년 12월31일까지 종헌중범에 의해 징계를 받은 승려중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 경감, 복권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비행을 참회하고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는 종헌 제 128조에 의거 심사과정을 통하여 사면, 경감, 복권 심사대상자를 확정코저 하오니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들은 아래와 같이 사면, 경감, 복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면, 경감,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경감, 복권 신청자중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종헌중범에 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면, 경감 복권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 래

1. 신청대상 : 1962년 통합종단사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징계를 받아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 (별반자 제외)
2. 신청기간 : 1999년 4월29일 - 5월6일
3. 제출서류 : 사면, 경감, 복권 신청서 (총무원 호법부 내방하여 작성할 것) 징계기간중 수행정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등) 호적등본, 사진1매 (가시수한 사진)

\*대상 승려는 본인이 직접 총무원 호법부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을 것

4. 문 의 : 총무원 호법부 (전화 02-735-5865, 팩스 02-735-0613)

불기 2543년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고 산

## '못 생명 건강기원' 23회 종소리 영화제·산중한담·시화전도 열어

의견이 모아져 추진하게 됐다. 실상사는 17일 저녁 7시 30분 연 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결식아동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컵등을 경내 찾점에서 판매하고, 지리산내 5개 면의 도로변에는 청년회에서 직접 제작한 봉축 깃발을 설치해 부처님 오신날 분위기를 한껏 북돋우게 된다.

면 마음은 불날' 주제 시화전을 경내에서 연다. 현재 주지 도법스님을 비롯, 화림원, 학림, 농장, 귀농학교, 신도회, 청년회 대표들이 시화전에 전시할 시화에 여념이 없다.

지리산 지역의 모든 사찰이 같은 시간 같은 수의 타종을 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총 23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의 모든 생명이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지리산 생태보호의 열의를 담는다. 23회의 타종수는 지리산에 소속된 행정구역 3도 5군 15개면을 총합한 수다.

## "히말라야 녹차 개발했어요"

한국불교문화진흥원 네팔서 차밭 경작기로 부처님 고향 네팔 히말라야 산록에서 재배되는 차로 동양인들의 입맛에 맞는 녹차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툼비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금정스님)은 지난 4월8일부터 11일까지(2박3일) 네팔 동부 히말라야 산록에 산재한 차밭을 순례하며 차를 뒤는 차문화 행사를 갖고 우수한 품질의 녹차를 개발한 것.



스님들이 네팔 현지인들과 함께 차를 두고있는 모습.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한국 네팔과 공동으로 히말라야 산중에서 차를 두고 차밭을 일구는 신행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물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소원 발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 발원하신 열매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 열매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저절로 놓는 잘못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 잘못은 유산한 어린생명을 살인한 죄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병이 없고 궁핍하고 재명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은 유산이 그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 하나하나가 저당도 못한 채 길가갈기 찢긴 채 죽어가는 피덩어리 생명체이며 그 생명을 소중히 나의 아이입니다.

현재의 나의 자식만 사랑하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영혼들이 갈 곳이 없어 내 주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놓고 있는 자리가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이 되고, 예들은 방탕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산만하고 공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애들, 또 잘하던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는 돈이 없어 매일 허덕이는 생활의 연속이 되는 것은 태아유산한 아이들만의 한 때문입니다. 저 범정(범)내은 이 어린 생명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천도를 생키 부처를 만들겠다고 사방세계 부처님께 굳게 맹세하고 서원을 세워 현재도 그 생명들을 천도하여 대광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떠나보낸 가정이 하나하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기에 1999년을 맞이하여 대불사 단체 천도식을 가행할 것을 서원하여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생명들을 바르게 부처님 곁에 보내고자 합니다.

천도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전화 : 02)929-9807, 휴대폰 011)398-9807 (법정) 유산한 아이천도 비용은 아기 한 명당 3만원 옷과 과자, 우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도 함께 포함, 천도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식구, 주소,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아래 주소지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천도하여 대광명을 찾아줄 것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동참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2-17호  
수자 성불사 법장 합장  
\* 송금 온라인 번호 : 제일은행 153-20-227927 장봉 임

부처님을 믿으시는 마음으로 의심없이 이 생명들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뜻한 소원성취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 평생 사주 1인 무료간명권

본 무료 간명권을 신여(보살)님들께 드리오니 본권을 절취하시어 신여님의 가족중 간명의뢰인 한분을 선정하시어 아래 간명의뢰인난에 음력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가년서 수취인 난에는 신여님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시어 우편으로 본원에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간명의뢰인의 평생사주 간명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명의뢰인	남	음력	년	월	일	오전	시	분	기혼
	여					오후			미혼

▶ 남, 여 기혼 미혼 해당년에 0표하여 주십시오.

간명서 수취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	----	----	------

○ 본 무료간명권의 작성인과 수취인은 반드시 신여(보살)님에 한하며 신남(거사)님과 스님은 본권 작성과 간명서 수취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801-57  
해동명리연구원  
전화 02)713-4852 FAX. 02)713-4853

### 세계 최초 비구니 육신보살 탄생

95년 99세 입적 中통혜스님 법신보존  
구룡사 자명스님 답사후 국내에 알려

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육신보살(肉身菩薩)이 탄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육신보살은 지난 95년 99세의 나이로 입적한 통혜사의 통혜스님.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26일까지 중국 고승의 수행처와 선종 사찰을 답사하고 돌아온 자명스님(시인·구룡사)에 의해 밝혀졌다. 그동안 신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육신보살이 된 김교각스님 등 비구니 육신보살은 여러 나라였으나 비구니 육신보살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육신보살이란 일체 생생과 같이 육신을 가진 보살이란 의미. <육조단경>에는 선지식(善知識)의 존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는 청정한 수행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력을 세운 스님이 입적후에도 육신이 썩지 않고 법신을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국 선종 유적의 답사를 통해 한국 불교가 방향, 나아가 새로운 인류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느꼈다"는 자명스님은 "중국 공산당과 문화혁명의 법난속에서도 이러한 육신보살이 나타난 사실은 중국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동국대학원 불교학과에서 <한산의 시세계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승이자 시인인 자명스님은 94년 4월부터 그리스와 유럽을 시작으로 인도 미얀마 태국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등을 순례하며 문화의 원형을 탐구해 왔다.

스님의 이번 중국 선종 유적의 답사 코스는 고승과 그 유적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자명스님은 "중국 선종의 희미한 그림자를 통해 한국 선종의 뿌리를 확인하고 선종의 유일한 법통이 한국불교에 이어져 있음은 물론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육신보살에 경이감을 느끼기에 앞서 스님의 깊은 신심과 수행력을 불자들의 거울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카데미

마스터/위저드 김희국 합장  
서울 종로구 명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이베타 코스는 79억 원에, 비유은 160억 원입니다.  
\* 원곡(곡)사는 본래는 안산(山) 무로(無)로 본토입니다.  
\* 교복(교) : 서울, 지방, 조계사, 3호선 경부중앙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약 20분 거리)

### 간명서 수취인

간명서 수취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